

17과 신분과 권세의 축복 ③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요15:7)

서론

- 1)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다(창1:27).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존재였다. 이것을 원의(原義,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한다.
- 2)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 모든 창조가 끝난 뒤에 칠 일째 되는 날에 안식일을 세우심으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예배하도록 하셨다.
사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2: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본론

1.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게 되었다.
 - 1) 영적인 타락은 인간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고 기도하게 한다.
사44:17-18 “그 나머지로(불을 때는 장작으로 쓴 것 외 나머지)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 2) 이러한 어두움과 무지로 인해 사람들의 인생은 우상에 종노릇하게 만든다.
갈4:8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 3) 우상숭배를 하면서 귀신(악령)과 교제하고 접촉하게 된다.
고전10:20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 4) 우상숭배는 영적인 해악을 넘어 우상 섬기는 자의 삶도 타락과 불의함으로 이끈다.
롬1:28-31 “또한 그들이(25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우상숭배 하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1) 그리스도로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 하신다.

요14:16-17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 그리스도의 진리와 성령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기에 성도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요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3) 예배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배 속에 기도할 수 있다.

출29:42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예배)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행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1)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

삼하24:25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2)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역사하셨다.

행27:23~14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네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3) 성도가 예배와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계8:3~4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예배)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결론

성도는 염려되는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아뢰면 된다. 그때 우리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빌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